

Michel Tétu

캐나다 라발 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퀘벡 라발 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불어관련 대학협회(AUPELF) 수석 사무부총장, 국제불어연구위원회(CIDEF) 회장을 거쳐 현재 국제불어문화권 연구위원회(CIEF) 회장으로 재직. 불어권 문학의 전문가로서 프랑스 국가공로 훈장의 다수 공로훈장을 수훈했으며 AUPLF 같은 국제기구 주최의 국제회의 조직위원으로 활약. 주요저서로는 *Le Guide culturels : Civilisations et littératures d'expression française*(1977), *La Francophonie: histoire, problématique et perspective* (1987), *Guy Tirolien de Marie Galante à une poésie afro-antillaise*(1990)와 다수가 있다.

퀘벡과 그 문학

미셸 뎀뤼

총장님, 불어권 국가의 대표사절 여러분, 연구소장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 춤기는 하지만, 햇살이 있고 새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고양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크고 멋진 이 캠퍼스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지내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어떤 작가는 그리스에서 얼마간을 머문 후에, “신이 말을 하는 곳이 있고, 한번 보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바위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르낭의 말이지요. 저 역시 캐나다와 퀘벡에 관한, 특히 문학에 관한 강연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수원 근처의 민속촌에 갔다 왔습니다. 몇몇 대학교수들과 함께 쥐테씨와 제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는 안내로 일하는 젊은이가 우리더러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쥐테씨는 “불란서요”라고 했고 저는 “캐나다요”라고 말했는데, 그는 쥐테씨에게는 불어판 안내책자를 주고 제게는 영어로 된 것을 주더군요. 제가 말했죠. “그런데 전 불어로 된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웃음을 짓더니 “아, 퀘벡, 퀘벡이군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아주 박식하다는 것, 그래서 민속촌 입구에서조차 퀘벡과 캐나다의 차이를 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국립대학 캠퍼스에 들어 오지 못하는 수십만의 학생들이 있다는 설명을 이미 들은 터라 나는 그가 어쩌면 낙방생 중의 하나, 그러나 아주 교양있는 불합격자 중의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만큼 박식한 대중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물관의 안내원이 벌써 퀘벡과 캐나다간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더 더욱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퀘벡과 캐나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 몇 가지 뚜렷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복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큰 나라입니다. 퀘벡은, 캐나다 안에서도 큰 지방인데 그 상황은 복잡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세기 초에 캐나다의 수상, 윌프레드 로리에 경 Sir Wilfried-Laurier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세기는 미합중국의 세기였다. 미합중국이 부강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주요열강이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윌프레드 로리에는 말했습니다. “20세기는 캐나다란 나라의 세기임을 보게 될 것이다. 캐나다에 대해서 점점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캐나다는 참고가 되는 국가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프랑스의 문화와 아메리카의 활력과 영국의 행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캐나다의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나는 종종 캐나다가 오히려 미국 문화와 대영제국의 활력과 불란서의 행정을 가지리란 인상을 갖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퀘벡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 역시 복잡한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20년전부터 퀘벡인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몽레알시의 호텔 베란다에서 양팔을 번쩍 들고 유명한 구절을 외친 어떤 장군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가 외친 구절을 계기로 삼아 퀘벡은 독립은 아니지만, 자주로 향해 나갔습니다. 1980년 선거 때에 퀘벡인들은 독립에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니다. 퀘벡인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을 말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강력한 캐나다 안에서의 자유 퀘벡일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퀘벡과 캐나다의 역사에 대하여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또 오늘날 불어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불어로 된 아메리카 문학에 대한 대강의 윤곽과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몇가지 간단한 개념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창적인 문학, 제가 곧잘 “아메리카의 불문학”이 아니라 “불어로 된 아메리카 문학”이라 하는 것과 가장 독창적인 서양문학,

일반적으로 오늘날 가장 독창적인 불어권 문학 중의 하나에 대하여 말입니다.

우선 캐나다와 퀘벡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지표와 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34년 자크 카르티에가 생 로랑을 발견하고 프랑스를 대표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누벨 프랑스가 되고 이어 캐나다가 됩니다. 1534년에 이미 그 땅에 도착한 유럽인들이 있었습니다. 10세기 경에는 바이킹족이, 뒤를 이어서는 특히 스페인이나 남불로부터 온 바스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고래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른바 그 시대의 석유였던 셈이죠. 자크 카르티에는 1534년에 오고, 샹플랭은 1608년에 퀘벡시를 건설하며, 메종-뇌브는 1642년에 몽레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프랑스인들이 조금씩 생 로랑 지방에 정착하고,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2,3세기에 걸쳐서 말이죠. 한편 영국인들도 내려왔는데, 몇몇은 대서양 연안에서 더 남쪽인, 사람들이 누벨 프랑스라고 부른 것처럼 누벨 앙글레테르라고 부르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북아메리카에 걸쳐 훨씬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퀘벡의 제 1주교 몽세네르 몽몽랑세 라발은,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 이름을 부여한 사람으로, 저도 라발대학의 일원으로서 그의 문장을 달고 다니는데, 그 몽세네르 드 라발은 대서양에서부터 바위산에 이르는, 큰 호수를 가로질러 오하이오와 미시시피를 거쳐 루이지애나, 누벨 오를레앙까지 뻗어있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땅덩이였는데, 프랑스인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사람들을 거의 보내지 않은 반면, 영국인들은 누벨 앙글레테르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알겠죠. 프랑스와 영국 간의 경쟁, 계속되는 전쟁 끝에 영국에 패한 프랑스는 1763년에 이 막대한 영토 전부를 영국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63년에 체결된 파리조약에 의해 북아메리카는 완전히 대영제국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에는 프랑스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프랑스로다 돌아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거의 6만 5천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몇몇 카톨릭 성직자들과 함께 남아 그 땅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로, 자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열, 열다섯 혹은 스물 정도의 아

이를 가진 가족이 아주 흔했는데, 그 6만 5천 명의 후손들은 오늘날 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같은 지역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데, 사실 그들은 여기저기를 떠다녔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미합중국에 가서 정착했고, 또 다른 이들은 서부 캐나다에, 그리고 약간은 사방에 흩어져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6백 5십만에서 7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퀘벡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은 프랑스보다 세 배가 큰,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열다섯 배나 큰 영토였지요. 어림잡아 7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거대한 영토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정리시켜 드리자면, 그러니까 1763년 파리조약 후로 북아메리카는 영국령이 되는데, 바로 그때 프랑스 혁명과 미합중국의 독립이 도래하지요. 미국인들은 영국으로부터 그들의 독립을 얻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생 로랑 주변 영국령에 있던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과 보조를 맞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볼테르가 “몇 에이커의 논덩이”라고 한 이 영토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료, 설탕, 커피, 차등 자원으로 가득한 서인도 제도나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들에 비하여 당시 이 땅은 거의 이로워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캐나다는 면적상으로는 수천 평방 km였지만 무엇보다 눈에 덜힌 지역이어서 해리와 다른 모피동물류, 그리고 식량을 찾아 짐승 사냥에 나선 몇몇 인디안들뿐이었고,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망설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로상보 제독과, 미합중국까지 라 파이에트를 동반한 그의 부관 드 그라스는 조그만 함대를 끌고 뉴욕에 잠시 정박한 채, 생 로랑 가로 다시 올라가 그 지방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프랑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은 아주 약했기 때문에 미합중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했으며, 이 때문에 라 파이에트를 독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뒤를 이어 남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특히 생 도미니끄라 불린 아이티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는 뉴욕을 떠나 오늘날 아이티가 된, 그리고 1803년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되는 생 도미니끄 섬을 지키러 갑니다. 이상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퀘벡인들이 열렬한 카톨릭 신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처음에는 환영했던 프랑스 혁명이 왕의 목을 치는 데까지 이르고, 당시 프랑스에 있던 몇몇 캐나다 성직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영국인들을 통해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들보다는 차라리 대영제국의 왕가와 함께, 영국과 함께 나아가기를 선호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요약할 하겠는데, 영국에왔다가 캐나다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영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카톨릭 신앙과 불어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인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알고있는 영국인들과 동맹하기를 선호했는데, 당시 미국인들도 그들 나름으로는 혁명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퀘벡인들- 이 당시에는 캐나다인이라고 얘기되는데-, 즉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불어와 카톨릭교를 고수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영국의 주권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두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는 두 민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더욱 많아진 영국인들과 점점 늘어나는 프랑스인들로 말입니다. 캐나다는 고지와 저지의 두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저지는 퀘벡으로 불어권이고 고지는 영어권으로,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미국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캐나다로 올라오는 한편, 영국으로부터 유입된 영국인들 때문이죠. 그래서 19세기 초에 저지와 고지 두 개의 캐나다가 존재하게 됩니다. 상황의 전개는 생략하겠는데, 한동안은 만사가 순조롭다가 또 한동안은 만사가 어렵기도 하고... 어쨌든, 1837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애국주의자들이 영국민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는데, 결국은 패하셔서 그 중 몇몇은 교수형에 처해졌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은 캐나다 연맹을 창설한 1867년에 일어납니다. 캐나다 연맹은 당시 네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고지와 저지의 캐나다를 없애고 퀘벡--이 명칭이 공식화된 것은 이 때부터입니다.--과 온타리오를 만들어 냅니다. 다음으로는 누벨 에코스와 누보 브린스빅이 생겨나, 불어권인 퀘벡은 더이상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넷 중에 하나가 됩니다. 1870년엔 새로운 주 마니토바가 생겨나게 되어, 퀘벡은 다섯 중에 하나가 되고, 1871년에는 콜롬비 브

리타니크가 생겨 여섯 중에 하나, 1873년에는 일 드 프랭스 에두아르가 생겨 일곱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1905년에는 서부 캐나다에 알베르타 주와 사스카치완주가 또다시 생겨나서, 퀘벡은 이제 아홉 중에 하나이다. 마침내 1949년 대영제국의 식민지인 페르 뉘브가 캐나다의 주가 됨으로써 퀘벡은 열 중의 하나가 됩니다. 당시 퀘벡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열개 주 중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투표할 때면 열 표 중 한표를 가질 뿐이었죠. 이것이 문제를 낳게 됩니다. 불평등이 생긴 거죠. 캐나다가 형성될 당시의 기본 조약에서는 불어권이 캐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두 공동체 중의 하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캐나다를 형성하게 된 애초의 동기에는 혁명 정신으로 충만한 미국과는 다른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영국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불어권도 미국과의 차별화에 보조를 맞추지만, 그것은 두 개의 발을 가진 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열 개의 주가 만들어짐으로써 퀘벡은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20세기는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퀘벡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런데 퀘벡이 존재한다는 것, 더 이상 프랑스 사람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영어사용자들에 의해서도 괴멸되기를 원치 않는 불어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프랑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파리 조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763년에 조인되었지만, 프랑스와의 관계는 1855년까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프랑스 최초의 프리깃함이 들어옵니다. 그 배는 라 카프리스외즈라 불렀는데 선창에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식 카나다는 프랑스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퀘벡인들은 프랑스인들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그들은 프랑스를 모방할 때도 조금씩 자신들의 문화를 특수화시켰고,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메리카에 이식된 프랑스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인이 된 것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아메리카인 말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닌데, 아메리카란 발견하고, 탐험하고, 거주해야 할 커다란 대륙에 속하는 바로 그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새로운 지역으로 말입니다. 퀘베크인들은 아메리카인이지만 '미국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인들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프랑스인들과도, 영국인들과도 같지 않으며, 그들 곁에 사는 영어를 쓰는 캐나다인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전체 문학은 이러한 것을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퀘베크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세기초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퀘베크사람이 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전원에서 도시로 옮겨 가게 되고 몽레알이나 퀘베크와 같은 커다란 도시들을 세우게 됩니다. 몽레알 주민은 1백 5십만명이고, 퀘베크 주민은 거의 5십만명에 가깝습니다. 퀘베크인들은 어느 정도 도시화 사람이 되는데, 점차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체제 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60년에 퀘베크 주정부는 새로운 구조 개편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고 교육을 개혁하게 됩니다. 즉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카톨릭적인 교육에서 일상적인 교육으로 옮겨오고, 의료보험을 강화하며, 그 자체가 국가의 개화인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1960년부터 예술은 괄목하리만큼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주 놀랄만한 정도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회화와 상송에서도, 특히 상송의 발전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영화와 조각에서는 약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몽레알은 춤에 관한 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960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모든 분야에서 아주 뚜렷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약간의 구분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약간 수정을 가할까 합니다. 1960년 이래 1991년까지의 발전이 항상 지속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퀘베크는 1960년부터 1976년까지는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상승기류를 탔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점점 성장했는데, 그 특징들에 대해서는 곧 살펴보기로 하죠. 제가 조금 전에 1976년이란 연대를 잡게 된 것은 이 때부터 독립과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인데, 이 해에 퀘베크당의 르네 레벡이 퀘베크의 권력을 잡습니다. 1980년에 그는 퀘베크인들이 독립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그 결과 독립은 부결되

었고, 이로 인해 문학, 예술, 퀘벡인들의 열정도 일종의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퀘벡인들은 무척 빨리 안정을 찾았습니다. 국민투표의 참패는 오히려 일종의 성숙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높이 뛰는 것을 피하게 하죠. 그것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아주 차분한 성찰을 하게 합니다. 예술과 문학은 되살아 나는데, 정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상태로 다시 살아납니다. 1987년 제 2차 불어권 정상회담이 퀘벡에서 열렸을 때, 퀘벡인들은 그 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미래는 불어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물론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이지만, 아메리카 불어권의 중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4년 전부터 불어를 쓰는 아메리카인 franco-américain이 존재함을 보아왔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는 불어사용자들이 있는데, 거의 백만이 됩니다. 미국 북부의 누벨 앙글르페르(=뉴잉글랜드)에도 삼백만이 있고, 또 대서양 부근, 대서양과 퀘벡 사이에는 불어를 쓰는 아카디아인들이 있습니다. 서부에도 조금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아메리카 불어권의 중심인 퀘벡 쪽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문학과 예술은 바로 이 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퀘벡인은 충만한 활력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순전히 정치적, 헌법상의 문제에서는 캐나다와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들은 보다 충만한 정신 속에서 캐나다와 함께 있음을, 그러나 캐나다에 종속된 주로서가 아니라 아메리카 불어권의 중추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문화적으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문학, 음악, 회화, 조각등 공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온갖 종류의 예술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술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학에 만족하고, 연구소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책 한 권을 기증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올 봄 퀘벡에서 낸 책인데, 『퀘벡, 하나의 나라, 하나의 문화 Le Québec, un pays, une culture』란 것으로 퀘벡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석 달에 걸쳐 동이 났지요. 프랑스 최이유 Le Seuil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는데, 여러 장에 걸쳐 제가 언급한 모

든 것들-조각, 건축, 가구 등에 대한- 이 실려 있습니다. 각 장에는 참고서 목록, 참고 필름 목록, 참고 녹음 목록이 달려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문학으로 돌아가죠. 조금 전에 저는 퀘벡의 문학사는 정체성 identité 획득의 역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청년이 되고 이어 어른이 되는 어린 아이 같다고나 할까요. 시대에 따라 문학은 아주 다릅니다. 우선 첫 시기의 문학은 불문학이었습니다. 1763년까지 글을 쓴 사람들은 캐나다로 이주한 프랑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여행기나 서간문 등을 썼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선교사들로서, 이들은 인디언 부락에 머물면서 인디언들과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한 세기 반 동안은 갖 점령한 새로운 지방에서 쓰여진 불문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지배하면서부터 몰락이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캐나다 지성인들이 프랑스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6만 5천명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촌사람들로, 성직자들과 함께 남은 농부들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쓸 줄을 몰랐습니다. 1827년에 정부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는데, 8만 7천명 중 7만 8천명이 가위표를 하였습니다. 8만 7천명 중에서 7만 8천명은 쓸 줄을 몰랐던 거죠. 이런 형편에서 문학은 불가능했습니다. 구전이야기 및 콩트와 상송, 그리고 훗날 상송에 활력을 준, 무척 중요한 전설들이 있기는 했지만 글로 쓰여진 문학은 없었습니다.

1830년에 최초의 책이 간행됩니다. 아마 미셸 비보라는 사람의 책이지 싶은데, 이 인물은 몽레알에서 나서 『묘비명, 풍자, 노래, 수수께끼 및 다른 시편들 Epîtres, satires, chansons, épigrammes et autres pièces de vers』--예전에는 제목이 아주 길었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최초의 저작을 낸,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별 중요성이 없는 인물이니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의 시는 그리 뛰어난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은 책 서두에서 그가 “나는 브왈로가 아니라면 샤플랭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이

렇게 말하고 있는 1830년대의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 문학이 한창이었는데, 그의 말이 뜻하는 바는 자신이 퀘벡에서 위대한 프랑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미 2세기도 지난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작가인 브왈로를 그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나는 브왈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17세기 프랑스 군소작가의 한 사람인 샤프랭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프랑스를 모방한 문학을 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시대에 뒤진 문학을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9세기 내내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진 프랑스를 모방하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가 전위적인 사상들의 소유지였다는 사실이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불러일으킨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프랑스의 모든 측면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전통적인 프랑스만을 모방하려고 했지요.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라발 대학 초창기의 대학입학자격시험에는 사람들이 제일로 치는 네 명의 고전작가인 꼬르네이유, 라신, 몰리에르, 볼테르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프랑스 쪽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오류나 어쭙잡은 흥내내기 같은 것들이겠지요. 어쨌든 이 시기-19세기- 동안, 여러 저작들이 출간되었고, 소설과 시 창작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프랑스를 모방한 문학, 그것도 뒤쳐진 것을 모방한 문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설들이 있으니까 기억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 개 인용해 보도록 하죠. 1837년에 『한 권의 책이 미치는 영향 혹은 보물찾는 사람 L'influence d'un livre ou le chercheur de trésors』이라는 모험소설이 나왔고, 이어 1844년에는 『1812년의 약혼자들 Les fiancés de 1812』이라는 미국에 반대한 전쟁 이야기가, 또 1846년에는 샤를 계랭이 쓴 『아버지의 땅 La terre paternelle』이, 그리고 1849년에는 『한 여자를 잃어도 얼마든지 Une de perdue deux de retrouvées』 등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의 소설들은 곧 향토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찬양하고, 자신의 고장을 찬양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퀘벡문학은 고장의 발견이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당 둘레에 있는 집단은 본당신부의 보호를 받으니까요.

다시 말해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이 소설들은 매우 교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아버지의 땅 La terre paternelle』이란 소설의 결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대지에 관한, 땅에 관한 소설임을 잘 보여주는데, 저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의 선량한 이웃들이 멀어지는 것을 다니스 신부가 보았을 때, 이번엔 그가 눈물을 쏟을 차례였다. 샤를은 이에 감동했고, 그 용감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궁지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아는 터라, 농가에서 그 신부와 늙은 마리안느를 위한 일자리를 찾았다.” 모든 것이 아주 좋게 끝납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모두 착하고, 감동받으며, 용감하고---등등. 저자는 그때 스스로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책의 결말에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몇 명의 독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다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기를 바랬을 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인공들이 차례로 난폭하게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시대의 수많은 소설들--이 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프랑스 소설들--처럼 끔찍하게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속이 대체로 순수하고 순박한 고장에서 글을 쓰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이 작품을 살인이나 독살, 자살로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다면, 이 작품의 개연성은 사라졌을 것이고, 심지어 무척 우스워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주목해주시 바랍니다. 망가져버린 문명은 낡은 지방에다 남겨둡시다.” 이 말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들이 프랑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문명이 빛어낸 피로 얼룩진 소설은 낡은 지방에 남겨둡시다. 있는 그대로의, 종교적이고, 정직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부와 안락함을 즐기며, 거만을 떨거나 과시함도 없이, 체념과 인내로 지고의 역경을 견디어내는 그런 땅의 자식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임종이 다가옴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만 아버지가 잠들었던 침대 위에서 조용히 죽을 수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 곁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휴식하고 있는 곳을 알려줄 소박한 나무십자가가 꽃힌 무덤 하나만을 바랄 뿐인 그런 사람을 그리십시오.”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벨기에의 비평가 모

리스 피롱이 이 문학이 교황의 영향권 아래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전통적인 것을 답습하며, 거기서 전혀 멀어지지 않으니까요. 지드가 지적한 대로 좋은 감정이 좋은 문학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 좋은 게 못됩니다. 이 점에 대해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작가들이 같은 방향을 취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같은 시기의 다른 작가 한 사람을 들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현재 프랑스에서 그런 것처럼 숨막히는 드라마를 찾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작가가 쓰고자 애쓴 것은 단지 이 시대 한 캐나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혹 연애사건이 있다고 해도 그건 단지 몇몇 풍속을 그리기 위한 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캐나다인들은 작가가 자기 아내나 다른 여자의 남편을 죽이거나 독살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를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들 주인공들은 가능한 거의 자살하지 않으며, 보통 두 세 세대에 걸쳐 큰 강가의 본당 교회 부근에서 아주 평온하고 모험이 없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 바로 여기에, 사회학적,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지배이념과 교회의 존재, 그리고 언어--그건 아주 훌륭한 불어입니다 -- 를 연구하기에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학인 한 부류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접속법 반과거 및 그의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사용한 완벽한 불어로 쓰여졌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문학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세기가 끝날 즈음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변명합니다. 성직자 카스-그랭 주교는 크레마지라는 퀘벡 시인과 서신을 교환하는데, 그는 이 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문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훌륭한 문학이 못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언어를 문제삼게 되는데, 이 때의 언어란 다름아닌 불어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문학의 내용에 흥미를 갖기보다는 언어를 문제삼았다는 사실입니다. 퀘벡 시의 시인인 크레마지는 프랑스의 문학동향을 알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중인 카스-그랭 주교에게 1867년 1월 29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퀘벡 문학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퍼붓습니다. “캐나다 문학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역사에 그 흔적을 남길 가능성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가 필요

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언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로꾸아 말이나 위롱 말을 쓴다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두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로꾸아 말이나 위롱 말을 쓴다면, 우리 문학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아주 어설픈 방식으로, 보쉬에와 라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창작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낱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층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해야 할 막대한 땅덩어리가 있고, 또 그것을 노래해야 하는데, 이미 아메리카인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자신들은 두번째로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샤토브리앙이 아탈라 르네로 이미 미시시피강을 노래했으니 더 이상 미시시피강을 노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개의 큰 단락에 이어 크레마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복하거니와, 우리가 위롱 말이나 이로꾸아 말을 한다면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구세계의 주의를 끌 것이고, 아메리카의 숲 속에서 생겨난 이 남성적이고 힘찬 말-언어-은 이방인들의 귀염을 받을 특산지의 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로꾸아 말로 표현된 소설이나 시를 앞에 두고 감격할 것입니다. 한편 퀘벡과 몽레알 사람들이 쓴 불어로 된 책을 읽을 고생은 안해도 되는 거죠.”

자, 19세기 말에 제기된 이러한 질문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진짜로 독창적일 수 있는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또 다른 시인인 프레췌크 Fréchêque는 “나는 빅토르 위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브왈로를 참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참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프랑스입니다.

세기의 전환과 함께 그것은 변하게 됩니다. 세기의 전환과 함께 문학 유파들이 생겨납니다. 퀘벡에 애국문학그룹이 하나, 몽레알에 문학 그룹이 하나 생겨납니다. 특히 몽레알에서 한 젊은 천재시인이 나오는데, 그는 거의 랭보와 같은 운명을 걷게 됩니다. 즉 18살에서 20살까지 몇 편의 훌륭한 시를 발표한 후엔 그만 미쳐서 몇년의 유폐생활 끝에 완전한 광인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에밀 멜리간이었는데 시에 새로운 방향을 주게 되죠. 그는 바로 캐나다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상징을 창조합니다. 처음에는 보들레르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더 캐나다적이 됩니다. 제가 두편의 시를 인용할텐데, 여러분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것은 「황금의 배 le vaisseau d'or」란 제목의 상징주의 시인데, 보들레르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배에 대하여 말하는데, 끝에 가서 “그건 나다 C'est moi”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순금 속에서 재단된 커다란 배였지
 돛은 미지의 바다 위 쪽빛을 건드리고 있었어
 거기에? 사랑이, 헝클어진 머리와, 맨살이
 과한 햇살에 뱃머리에 늘이어 있었어.

하지만 밤이 와서는 바다의 요정이 노래하는 거깃말장이
 대양 속 커다란 암초를 때렸지.
 그리고 변함없는 죽음, 소용돌이의 심연에다
 무서운 난파가 배 밑바닥을 기울게 했어.

그것은 황금의 배, 반투명의 옆면은
 세속의 선원들이 혐오, 증오, 신경질 사이에서
 논쟁하는 보물들을 보여주었지.
 순식간의 풍랑에 그에겐 뭐가 남을까?
 버려진 배, 내 마음은 무엇이 될까?
 어찌나, 그것은 현실의 심연으로 잠겨버렸다.

아름다운 시이긴 하지만, 19세기 말의 불문학과 거의 진배없는 것이라 할 만한 것입니다. 퀘벡을 휩쓴 다른 시가 한편 더 있습니다. 「겨울 밤 Soir d'hiver」이라는 시입니다.

아 눈이 많이 왔구나
 내 유리창은 성에 낀 정원

아 눈이 많이 왔구나
 삶의 경련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이 고통에

모든 연못은 언 채 살아있다
 내 영혼은 암흑
 나는 어디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희망은 얼어있고
 나는 황금빛 하늘이 가버린
 다른 노르웨이

울어라 이월의 새들아
 잠것들의 암담한 떨림에
 울어라 이월의 새들아
 울어라 내 눈물이며 노간주 나무 위
 내 장미여 울어라

아 눈이 많이 오는구나
 내 유리창은 성에 낀 정원
 아 눈이 많이 오는구나
 내, 이 모든 권태에
 삶의 경련이란 무엇인가?

조금 빨리 읽어 버렸는데, 용서하십시오. 몇편 더 원하신다면, 빨리 덧붙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은 느끼셨을 겁니다. 힘이 있고, 추위와 눈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세기 내내 펼쳐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감입니다.

20세기 초에, 소설사에 한 획을 그을, 자주 거론되는 소설 한 편이 나옵니다. 『마리아 샤브들렌』이란 것인데, 퀘벡인이 아니라 얼마간 퀘벡에서 산 루이 에몽이란 프랑스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겁니다. 『마리아

샤브들렌』은 소설에 영향을 줍니다. 겨울이 소설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과, 눈, 전원 에 대한 많은 소설, 그리고 퀘벡인들이 도시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도시에 대한 많은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 1948년에 가브리엘 로이라는 프랑스계 캐나다 여자는 『우연한 행복 Bonheur d'occasion』이라는 책으로 프랑스 “페미닝 상 le prix féminin”을 받습니다. 도시에 관한 소설, 퀘벡 최초의 훌륭한 도시 소설인데, 프랑스에 알려진 데에는 약간의 우연이 작용합니다. 어쨌든 훌륭한 소설입니다. 시도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시인과 훌륭한 시가 나옵니다. 이어 희곡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술과 함께 시가 조용히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에 공황이 닥칩니다. 아시다시피 30년 경에 대 경제공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고장까지 흔들어대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제이론 혹은 문화이론도 인정하지 않았죠. 당시 프랑스는 초현실주의 시대였습니다. 캐나다에선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화가 보르디아가 “전면 거부 le refus global”를 주장합니다. 이 회화 선언은 문인들에 의해 다시 채택되었고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메리카인들이나 프랑스인들처럼 쓰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말-언어-로써 그 고장을 소유하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힘을 갖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고장에 이름을 지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고장은 아주 광대했으며, 교구당이나, 조그만 마을 심지어는 그 도시에만 머무는 것이어서도 안됩니다. 말-언어-로써 모든 풍경을 점유하여야 하니까요. 그리하여 고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적 영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 도시를 환영하여 Pour saluer une ville」, 「보레알 Boréal」, 「생로랑에 부치는 송가 Ode au Saint Laurant」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는데, 가르시앵 라프앵트 Garcien Lapointe의 「생 로랑에 부치는 송가」 중 몇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는 내 조화로움이 태어난 곳에 사람을 놓으려다
 내 언어는 아메리카의 것이고, 난 이 풍경에서 태어났지
 나는 강의 진흙에서 숨을 쉬었다

내가 대지요 말이다
 해는 내 발치의 풀밭에서 일어난다
 해는 내 머리 밑에 잠든다
 내 팔은 몸을 따라 있는 두개의 큰 바다
 전 세계가 내 옆구리를 두드리러 온다.
 매일 밤 큰 바다에서 돌아오는 것은 강,
 매 시선에 떨리는 큰 바다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는 이렇게 고장을 노래하고 그것을 후하게 찬양하며, 말-언어-을 통해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말-언어-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시골에서는 말-언어-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반면, 도시에서는 악센트 때문에 억양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중모음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ère"가 "paère"로, "mère"가 "maère"로 된 것입니다. 비음화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악센트란 장식이니깐요. 더 고역은 통사에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즉 더 이상 뼈대가 없는 경우 말입니다. 50,60년대에 사람들은 그 언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시 "un cheval"을 빠르게 발음하여 "un joual"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joual"이란 단어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불어가 아닌 하나의 변형된, 이그러진 반죽같은 언어를 특징지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한 언어의 가지인데 반해, 그것은 이를테면 어떤 언어가 무디어진 것이니깐요.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불어가 제대로 보존되던 시골을 떠나 도시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영어사용자들과 접하게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다가 결국 언어가 나빠지게 된 것이지요.

작가들은 이러한 언어를 편들고 나왔습니다.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언어로써 민중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깐요. 자신의 뿌리로 내려가, 진정으로 민중이란 걸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량들의 언어를 말해서는 안되죠. 민중의 말을 해야하며, 또 그 언어로 된 문학을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찬 이론가 폴 상베를랑 Paul Chamberla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진흙, 바로 진흙이야말로 아침의 초상 위에 새겨야 할 태초의 흙이자 창조의 재료이며, 우리의 육체이자 의식이다. 잘 쓰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로 쓴다는 것, 그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으로부터 유리 디체, 즉 퀘벡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비이성, 즉 근본적인 비밀관성을 극한까지 밀고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 말, 이성 위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오르페우스인 동시에 야수이다. 그 진흙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바대로의 인간, 타자의 세계의 빛에 침투할 수 있는 우리와 유사한 얼굴의 인간을 끌어내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흙과 지평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인들은 퀘벡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쁘게 쓰는 것, 즉 먼지와 더러움과 진흙으로 쓰는 것을 옹호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요. 영국인들과도 몇 차례 충돌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프랑스인들이 캐나다에서 불어를 말할 때도, 단지 불어를 쓴다는 이유로 퀘벡인들을 미합중국의 흑인들에 빗대어서 하는 말인 “Speak white”, 즉 “백인말-영어-을 쓰라.”는 요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데요, 제 아내의 경우에도 1966년 어느날 토론토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불어로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웬 토론토 노파가 “백인말을 쓰라”고 요구하면서 우산으로 무릎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토론토에서는 “왜 미합중국은 흑인들이 있고 캐나다에는 퀘벡인들이 있는가?”라는 농담이 있었는데, 그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인들이 먼저 그랬으니까!”라는 것이었지요. 말하자면 퀘벡인들은 자신들이 과소평가받는다고 느꼈으며, 또 실제로도 여러차례에 걸쳐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1970년 한 여자시인이 「백인말을 쓰라 Speak white」라는 시로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미셸 라롱드 Michel Lalonde 인데,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옛보이는 이

림모를 곱상한 얼굴이나 실락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린 미개하고 말을 잘 못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천재의 말에도 귀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밀턴과 바이런, 셸리, 키이츠의 억양으로 말하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조상들의 거친 노래와 설움을 가진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대헌장이나 링컨 기념물, 타미즈의 회색빛 매력, 포토맥의 장미빛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들의 전통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뛰어나지도 못한 민족이지만 보스턴 차사건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받은 삶에 대해서, 생활수준에 대해서, 위대한 사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백인말을 쓸 때, 좀 더 크게 말하십시오! 자 백인말을 쓰십시오! 감독관같이 목청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약간 귀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기계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들 위에서 헐떡이는 우리의 숨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백인말로 크게 말씀하십시오! 생-앙리 Saint-Henri (몽레알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부터 생 도미니끄 Saint Domingue까지 여러분의 말이 들리도록! 명령을 하고, 작업을 마치는 시간을 부여하기에 이 얼마나 멋진 언어입니까! 백인말을 쓰십시오! 생산, 이득, 이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사기에도 풍족한 언어이지만, 특히 자신을 팔기에, 영혼을 잃으면서 자신을 팔기에, 진정으로 자신을 팔기에 풍족한 언어입니다. 아!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의 파업이 진정 얼마나 길었는지를 말하기 위해, 평범한 수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녁 소로 위로 해가 꺼지면 곧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래요, 해가 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욕설을 담은 말, 더러운 기쁨으로 얼룩진, 그리 깨끗지 않은 우리의 말보다 가치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편안하게 여러분의 말-언어-안에 있으십시오. 우리는 한맺힌 백성

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부드러운 언어 속에서 언어교정을 독점했다고 그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콩고에서처럼 순수하고 끔찍이도 순결한 불어를 말하십시오. 이빨 사이의 노란 별인 온전한 독일어로 말하십시오. 러시아 말을 하십시오.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억압을 말하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건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우린 이 눈물나고 지겨운 말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와 민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Tell us again freedom and democracy! 비참이 검둥이의 단어인 것처럼, 피가 알제리 골목길의 먼지에 섞여드는 것처럼, 자유란 흑인의 날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웨스터민스터에서 워싱턴까지 교대로! 백인말을 쓰십시오! 월스트리트에서처럼! 임기 웅변의 우리의 화법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중히 “안녕하십니까 “How do you do?”라고 물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억양을 가진 긴 영어문장으로 답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시는 1970년에 열광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학생들에게서 갈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한밤 내내 그 시를 반복했습니다. 1970년 부활절 밤에 시인들은 이같은 시편들을 낭송하기 위해서 온밤을 불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시의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극작가 미셸 트랑블레 Michel Tremblay는 『여자 친척들 Les belles-soeurs』이라는 한편의 연극을 상연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전부가 친척간인 하층사회의 여자들입니다. 서민구역에서는 모두가 사촌간이거나 혹은 얼마간 친척들이며, 이 때문에 『여자 친척들』이란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사은권을 얻습니다. 그 중에는 한 상자를 얻은 여자도 한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딱지란, 뭔가를 구입했을 때 얻는 것이지요. 그것을 붙여서 양이 조금이면 조그만 선물을 받고, 양이 많으면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상자를 얻은 여자는 사은권

을 함께 붙이기 위해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 연극은 오로지 한 스물 정도의, 정확히 열 일곱명의 여자들이 무대 위에서 사은권을 붙이면서 서툰 언어로 퀘벡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저 얘기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 연극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40여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제가 생각하기로 20여개 언어로 공연되었습니다. 아주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리하여 퀘벡인들은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며, 병든 언어라라도 자신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들은이 병든 언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입니다. 국민투표의 참패가 오히려, 이전 역사에 틀어박히지 맙시다. 숨을 쉽시다. 이젠 남들의 수준에 있습니다. 더 개방합시다. 그래서 더 큰 차원을 가집니다. 전 세계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합시다라는 식의 주의력을 환기시켰습니다. 불어권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커다란 땅덩어리에, 사람은 거의없는 아메리카의 조그만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봅시다. 전 세계를 향해 열리기를 허락하는 불어권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편 그 때 문학도 조금씩 변합니다. 주얼어를 퀘벡의 불어로 허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히 불어단어가 아닌, 그러나 퀘벡에선 정상적인 단어인, 퀘벡의 낱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와 길가에 눈이 쌓였을 때 퀘벡에서는 “bancs de neige”라고 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congères”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결코 눈더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낱은 단어이니까요. 최초의 거주민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들이 쌓였을 때, 그것을 “bancs de poissons”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렇게 bancs de poissons 모양으로 쌓여있는 걸 보자 bancs de neige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퀘벡인들은 un banc de neige라고 하지, 결코 congères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퀘벡인들은 “fin de semaine”라고 하지, “week-end”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rrêt”라고 하지 “stop”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쓰는 영어식 표현 anglicisme을 그들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퀘벡 낱말에, 심지어 그것이 낱은 단어일 때도 대단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점차 문학은

개성적이고 진솔한 것이 됩니다. 풍요로와짐과 동시에 앞서 행해졌던 그런 종류의 순화 덕분에 아주 보편적이 됩니다. 오늘날 위대한 시인인 가스통 미랑 Gaston Miran은 몇몇 시편들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로 다음의 시를 봅시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먼 곳에서
 유럽의 집처럼 조여지는 가슴
 내 유산의 추위타는 빈약한 낱말을 가지고
 내 거친 생각의 선천적인 빈한함을 가지고
 나는 짐끄는 말처럼 시로 나아간다
 안개낀 세상 속 싱싱한 여름 아침에
 현실을 포착하려 귀를 쫓긋 세운
 옛날 힘든 노동판의 그런 말처럼

여기 하나를 더 발췌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의 친구, 나의 퀘벡, 내 슬픈 대지, 내 사랑스런 대지,
 타래진 바람 속에 숨가쁜 내 조국, 나는 너를 닮아서,
 고달픈은 얼굴에 갈대의 생생한 단말마를 넘어 이마에 커다
 란 구멍뚫린 상처를 가진 가슴에이는 현존

이상과 같은 것들인데, 너무 길게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이처럼 시는 많이 발전했으며, 소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퀘벡에서는 매해 거의 1500권에 달하는 저작들이 출간됩니다. 모두가 문학에 관한 것은 아니며 시나 소설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백만의 주민에게는 엄청난 양으로 그 종류만큼이나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퀘벡은 자기 내부로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리주의 때문에 퀘벡이 그래도 자기 내부로 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퀘벡의 분리주의자 수상인 르네 레벡이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쥐와 고양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 퀘벡인들에게 개방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쥐를 쫓는 고양이 이야기이지요. 쥐는 고양이보다 먼저 쥐구멍에 도착해서 매우 흡족해 합니다. 고양이를 피했으니까요. 쥐는 흡족해서 그 조그만 발을 비벼댑니다. 고양이는 입구에서 분해하죠. 화가 치밀어서 야옹야옹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쥐는 제 구멍에 있는 것에 흡족해 하고요. 그때 고양이에게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놈은 짚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쥐는, 조그만 머리로 생각하기를 “짚어대는 것을 보니 개로군, 그렇다면 고양이는 갖다는 애긴데,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지요.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고양이가 잡습니다. 그리고 그 놈을 잡아먹기 전에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이점이 뭔지 충분히 봤겠지!” 자, 그러면 이 이야기와 함께, 퀘벡은 자기 자신 속으로 닫혀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날 퀘벡문학의 특징은 가히 폭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강연을 끝낼까 합니다. 캐나다의 문학은 새롭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역사가 이삼십 년 정도이니, 낡은 게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폭발, 하나의 자주화가 있고, 완전히 문학적인 장이 있으며, 작가들이 있고, 편집자들이 있고, 독자들이 있고, 비평가들이 있고, 책을 보관할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회-문학 socio-littérature을 연구했다면, 이른바 문학장 le champ littéraire이라는 것이 퀘벡에 정말로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여년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완벽합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카 불어권의 핵심입니다. 퀘벡은 아메리카 땅이라는 걸 잊지 마시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 퀘벡문학에서 불어, 그것도 아메리카 불어를 쓰는 대 공간인 아메리카를 보는 것이 어떻게 흥미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시늉을 하면서--역자) 전통적인 불어 표현으로는 “두손에 머리를 묻고 la tête entre les mains”겠지요. 맞죠? “알라스카 바다표범의 불평”라는 요즘 상상은 유명한 곡이어서 제가 두고갈 카세트에도 실려있는 것인데, 적절한 바다표범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 높은 얼음 위에 있는데, 그놈의 애인 바다표범이 서커스에서 밥벌이를 하러 미국에 가버렸기 때문에 적적해 하는 겁니다. 후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 위에서 풍선돌리기를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은 없지.” 빙산에서 바다표범은 적적해 하지요. 이렇게요(시늉--역자). 그런데 여러분은 노래를 듣는 도중에 “두 손에 머리를 묻고 *la tête entre les mains*”가 아닌 “얼굴에 두 손을 대고 *les deux mains dans la face*”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붙어는 붙 언데, 앞엿 것은 유럽 붙어이고 뒤엿 것은 아메리카 붙어인 셈이지요. 이상이 이환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연구소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퀘벡 문학을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될 때 발견할 수 있을 것들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역>